

格致藁에 나타난 大學·中庸에 관한 고찰

洪周希* · 高炳熙*

I. 緒 論

格致藁는 李濟馬의 生涯(1836年~1900年) 中 45才부터 57才까지, 壯老年期를 통해 저술한 哲學書로 東醫壽世保元의 모태이다.

그는 格致藁를 통해 철학적 기틀을 마련하고 東醫壽世保元 및 齊衆新編을 지어 신체적 사회적 양생을 제시했다.

格致藁는 儒略·獨行篇·反誠箴으로 구성되었으며 儒略은 最初로 45才되는 庚辰年에 시작, 事物篇에서 四戒篇까지 5篇을 쓰고, 10年後인 55才되는 庚寅年에 7편을 補完, 12篇의 儒略을 완성하고 47才에 獨行篇을, 57才에 反誠箴을 지어 格致藁를 완성하였다. 그후 57才되는 甲午年에 東醫壽世保元을 짓고, 62才에 濟衆新篇을 지었는데 濟衆新編은 편집상 格致藁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中庸」과 「大學」은 우수한 儒學概論의 하나로 원래는 禮記의 한편이었으나 北宋時代 도학자들에 의해 그 사상적 가치가 재고되어 四書에 편입되었다.

大學의 中心思想은 三綱(明明德·新民·至於至善)과 八條目(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으로 집약되며, 大學, 이를 통해 學問의 규모를 밝혔다. 中庸은 性·

道·教·誠·中和의 概念을 들어 형이상학적인 道의 미묘함을 구하였다.

이제마는 大學의 德을 形以下學으로, 中庸의 道를 形以上學으로 규명하고, 格物治平을 人道로, 誠에 이르는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誠意는 大學과 中庸의 중요한 테에마로 이제마 철학의 知人正己에 바탕이 되며, 이는 大學의 三綱의 취지로 이어진다.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背景(宋一炳著)」에서는 學·庸이 事·物·心·身 및 天·地·知·行의 四元構造 도출에 중요한 근간이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格致藁에 드러난 學·庸의 思想을 더듬어 봄으로써 四象哲學의 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II. 本 論

1. 大學과 中庸의 成立 背景

大學과 中庸은 「禮記」의 일편에 불과했으나 北宋時代의 도학자들에 의해 그 가치가 재고되어 四書속에 편입, 우수한 儒學概論으로 각광받아왔다. 大學과 中庸의 성립배경을 살펴 보자면 母胎인 禮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없다. 따라서 禮記 및 大學·中庸의 成立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一. 「禮記」에 대하여

현행되는 禮記는 처음에는 소대, 예기(小戴禮記)라 불렀다.

소대란 이 책의 편자인 대성(戴成)을 동시에 禮學者 大德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으로 이들은 모두 後倉의 제자이다.

禮記 저술 연대는 前漢 中期로 추정되며 예기 131편 禮文志, 自註에 의하면 「明堂 陰陽記」 32편, 「孔子三朝記」 7편, 「王氏史氏記」 21편, 「樂記」 23편 등에서 번잡하고 중복된 것을 정리하여 85篇을 한권으로 묶은 것으로 이를 「大戴 禮記」라 하고 다시 49篇으로 편찬한 것이 小戴 禮記라 한다. 다만 「中庸篇」은 小戴 禮記가 成立될 무렵 이미 別存한 「子思」 23篇에서 채록했다는 說도 있어 小戴 禮記를 단순히 大戴 禮記의 절약(節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두 편의 禮記는 前漢 後期에서 後漢에 걸쳐 병존하였으나 後漢의 大儒 鄭玄이 小戴禮記를 주로 하고, 唐太宗 당시 五經正義를 選著할 때 小戴 禮記를 채용한 것이 치명적인 원인이 되어 大戴 禮記는 唐이후 거의 간절되고 현재 남아있는 예기는 小戴 禮記이다.

그 내용에 있어 禮記 49篇은 천지에서 제후, 경대부 및 사인(士人)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각종 예제(禮制)가 공자의 교설이나, 실천의 형태, 혹은 사제간의 응답의 형태, 또는 第3者에 의한 서술의 형태를 취해 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또 그 기술이 先奏期에서 전한 중기에까지 古禮經으로서의 의례와 주례 양서를 보충 부연하여 그 변화하는 자취의 한끝까지도 전하므로 고대 중국 사회와 정치의 거점이 되어오

던 禮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과 동시에 여러 예제의 本指, 精神에 대해서도 도처에 설술되고 있어 윤리 사상사적 측면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시한다.

그 후 여러 학자에 의해 禮記는 재정리되었는데, 특히 鄭玄의 鄭目錄은 全9篇中 「通論」 1篇에서 예의에 대한 성찰을 말하는 몇 편을 說述하였다. 이 몇편中 「大學」과 「中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二. 大學, 中庸의 成立에 대하여

(1) 大學篇

「大學」은 禮記 49篇中 第42篇으로 朱子에 의해 갖추려져 독립된 경전이 되었다. 大學의 全文은 1753字(中庸 3568字)에 지나지 않는 단편이며, 大學의 著者는 朱子에 의해 曾子라 단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명확지 않다.(일설로는 漢武帝때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 교육이념을 적은 문서였다함)

大學의 正本은 세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1) 禮記의 일편으로서의 大學, 2) 朱子가 內定한 大學, 즉 大學章句, 3) 「古本 大學」이라하여 朱子の 大學 章句本에 대항하여 만든 陽明學派의 大學이 그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宋學以前, 朱子(宋學), 陽明學으로 나누어 宋學以前이 儒教, 즉 鄭玄의 경학적 입장에서는 「大學은 널리 배워 써 政治를 하는 바탕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당시의 중심 개념은 「誠意」로 朱子가 三綱畧, 八條目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그 사이의 本末 始終의 관계를 확정한 것과는 같이 논할 수 없고, 특히 일체의 출발점으로서의 格物 致知를 강조한 것과는 명백히 대립된다. 도리어 후의 王陽明이 大學의 要는 誠意뿐이라 말한 것과 외견상 일치되나 이미 朱子를 경과한 陽明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大學」은 唐以前에는 거의 주목을 끈 적이 없었고 韓愈(768~824)의 논문 「原道」를 통해 비로소 중요한 사상적 의미에서 취급되어졌으나 특히 표면에 나타나 논의된 것은 宋代부터이다. 한유에 의한 대학의 표면화나, 끊임 없이 철학적 문헌으로 취급되어왔던 中庸이 「思辨」의 대상으로서 취급된 것은 宋學의 선구 현상이었다.

宋代 인종황제(仁宗皇帝) 때에는 과거급제자에게 大學, 中庸을 하사하여 이 두편이 짝이 된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한 짝을 이루어 사대부 계층의 존재에 본질적으로 융합되는 것으로 의식되기 시작했다. 朱子學을 한마디로 단언하면, 사대부의 학문, 즉 사대부의 의식 세계관을 결정하는 학문으로 이것은 修身을 治國平天下와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內外융합의 유교의 도를 「大學」 혹은 「大學-中庸」만큼 명확하게 드러낸 문헌이 없었으므로 大學이 宋學과 더불어 빛을 발한 것은 당연하다.

이무렵부터 大學의 註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마광(司馬光)의 「大學廣義」를 필두로 정명도의 「대학 정본」 정이천의 「대학 정본」 여대림의 「大學解」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씨 학단에서는 「大學」「中庸」은 거의 교과서였고 朱子の 「大學章句」「中庸章句」는 총정리라 할 수 있다.

「大學」의 名稱에 대한 견해는 여러 설이 있는데

1. 鄭玄의 설

鄭目錄의 「이름에서 대학이라함은 그 박학으로써 정치를 해야한다.」로 보아 博大함으로 ‘大’學이라 명칭함.

2. 두우(杜佑)의 설

우유씨 즉 帝帝時代 학교 명칭에 기인

3. 朱子說

古代 大·小 두학의 학교가 있어 大學篇은 大學의 이름을 따 그 교육방침을 풀이한 것임.

4. 직접 篇首의 두 자로 명칭한 것등으로 다 일리가 있다.

(2) 中庸等

中庸은 예기 31편을 한 권의 경전으로 독립시킨 것으로 中庸篇의 著者는 子思이다.

中庸은 宋代 이후 중국 형이상학의 최고봉으로 그 傳流를 살펴보면

一. 전한 후기 成帝때, 小戴의 제자 橋仁이 저술한 禮記章句 49篇에 中庸의 章節의 정리와 註가 있었으리라 추측되며,

二. 한서 예문지 六藝略 禮部에 中庸說 2편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중용편의 사상적 가치는 일찍 착안되어 늦어도 전한 말경에는 주석서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三. 六朝 宋時代에 대응(戴)이라는 사람이 예기에서 뽑아 별책으로 중용전 두권을 만들었고,

四. 梁武帝의 중용강소 1권, 사기제지중용의(私記制旨中庸義) 5권이 있고,

五. 唐의 사상가 이고(李翱)는 中庸을 儒家 惟一의 性命書라 보고 「復性書」를 지어 中庸의 해석 및 새로운 의의를 가하였다.

六. 北宋의 재상 范中淹은 易, 中庸에 의해 도덕적 복원을 찾아 명절을 지려(砥勵)하여 그의 문하에서 安定の 胡瑗이 지은 中庸撰, 周敦頤(濂溪)의 通書 등의名著가 나왔는데 특히 周濂溪의 通書에서는 주역과 중용을 근거로 도덕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사마광의 中庸廣義, 大學解義등이 있어 북송 중기에 學·庸에 대한 평가가 한층 높아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二程子에 의해 學·庸二 편을 표장해서 논어·맹자를 병행시키는

결과를 배태했으며, 이것을 정착시킨 것은 朱子 때 부터이다. 정주의 신유학 - 그 정수이고 집대성의 학문으로서의 주자학의 근거가 四書를 중심으로 하는곳에 있었다는점은 오경정의(五經正義)의 작성을 중심으로 하는 漢唐의 유학과 상치되는 가장 현저한 점이다.

三. 대학·중용의 사상적 입장에 대하여

學·庸 2편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大學」

- 1) 三綱 中 親民과 新民에 관한 문제
- 2) 格物致知
- 3) 誠意에 관한 中庸과의 관계
- 4) 修身과 마음과의 관계

「中庸」

- 1) 性·道·教에 관한 문제
- 2) 道·中和·中庸과 誠과의 관계
- 3) 鬼神에 대한 문제
- 4) 中庸 후반의 참입설에 대한 문제
- 5) 中庸의 성립과 易과의 관계, 그 사상적 연결에 관한 문제

이중, 大學과 中庸의 관계에 있어, 그 사상적 유사점을 들어 大學의 著者를 子思라 주장한 後漢, 賈逵(賈逵)의 논거를 보면 비록 대학의 저자여부는 차지하고라도 그 고찰의 치밀함으로 도움이 되므로 살펴본다.

1) 「大學」에서는 ‘格物致知’로써 誠意在 근본을 삼으나, 「中庸」에서는 ‘致曲’으로써 誠의 先이라 보고 있는 점.

2) 「大學」의 ‘格物致知’란 다름이 아니라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하게 묻고(審問) 삼가 생각해서(愼思), 명확하게 말한다(明辨)는 단계를 밟아 善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善을 구체적으로 選出하는 일이다. 따라서 意를 성실하게 하는 것(意誠)이 기본이 된다.

한편, 「中庸」에서는 善이 밝혀지지 않으면 몸에 誠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또 이를 誠스럽게 하는 사람이란 선을 택하여 굳게 이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3) 「大學」에서 「至善」에 머무른다」란 중용에서는 「선을 택해 굳게 이를 잡는 자」에 해당하는 점.

4) 「大學」의 「意를 誠스럽게 한다」에는 獨을 삼가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있고, 「中庸」에서는 誠을 말하는데 대해 개권 제일에서 우선 愼獨을 말하고 誠을 설명하는 후반부를 위한 張本으로 하고 있는 점.

5) 「大學」에서의 「안으로 誠하면 밖으로 나타난다」란 「中庸」에서는 「誠하면 나타난다」고 말하고 성을 덮어 가리지 못함은 이와 같다는 것과 부합한다.

6) 「大學」에 ‘明明德 親民’이 있다. 그 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민을 교화 감화하는 말이다.

「中庸」에서 ‘성스러우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뚜렷해진다’라는 것이 明明德에 해당하고, ‘뚜렷해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化한다’는 것은 親民에 부합하다.

7) 「大學」에서는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이것이다 몸을 닦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라고 한것은 「中庸」에서 ‘대저 천하국가를 다스리는데 구경(九經)이 있어 말하기를 몸을 닦는 것이다 운운’하고 부합한다.

8) 「大學」에서의 ‘군자는 먼저 덕을 삼가한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다’란 「中庸」의 「정치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을 취급함에는 몸으로써 하고, 몸을 닦음에는 길로써 했다’라고 한다.

前者의 사람이 있다(有人)이나 後者의 사람에 있다(在人)라 함은 다 賢者를 가리키므로 양자가 부합된다.

9) 「大學」의 ‘배움에 순하고 스스로 닦는다’는 「中庸」의 ‘덕성을 존중하고 문학에 순종한다’와 부합한다.

10) 「大學」의 ‘군자는 그 현을 현으로 하고 그 친을 친한다’는 것은, 「中庸」의 「귀중한 것을 공경하고, 그 친하는 것을 사랑한다’와 부합한다.

11) 「大學」에서 ‘민을 새롭게 하려면 그 극(極)을 쓴다’는 것은 「中庸」의 ‘순이 그 중을 민에게 썼다’는 말과 부합한다.

12) 「大學」의 修身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닦은 다음 「그 현을 현으로 해서 그 친을 친한다」라는 순서이나 이것은 「中庸」의 구경(九經)이 있다가의 다음순서가 「몸을 닦아야 한다. 현을 존중해야 한다. 친을 친해야 한다」라 말하는 것과 완전히 부합한다.

그리고 다시 양자의 논지가 합치되는 네곳을 적출해서 大學 일편은 中庸과 表裡되며 맹자의 선편·초시라 했다. 이는 저자의 동일성을 반드시 입증치 못하더라도 兩書 관계의 긴밀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文獻 및 考察

(1) 格致藁 儒略 事物篇

- 1)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
- 2)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 3)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 4)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
- 5) 仁以居也 義以群也 禮以聚也 智以散也
- 6) 物萬也, 身一也 心一也 事萬也
- 7) 萬事大也 一心小也 一身近也 萬物遠也
- 8) 治平大也 格致小也 誠正近也 修齊遠也

- 9)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膽慮意 物四端也
- 10) 心應事也 博而周也
事湊心也 察而恭也
身行物也 立而敬也
物隨身也 載而效也
- 11) 齋心偏也 詐心倚也 侈心過也 懶心不及也
偏心偏決也 倚心倚止也 過心過覺也 不及心不及行也
- 12) 私心昧也 慾心闇也 放心窒也 逸心罔也
昧心昧學也 闇心闇辨也 窒心窒問也 罔心罔思也
- 13) 私心而昧學者 視天下事忽而視自己事重也
慾心而闇辨者 視天下物貪而視自己物屑也
放心而窒問者 思一身無慮而橫行則快於心也
逸心而罔思者 思一心無爲而自棄則便於身也
- 14) 一天之同胞好德者多助 嗜利者寡助 溥夫之心常憂患也
萬物之群居 謹厚則必興 殘刻者必亡 頑夫之心常恐懼也
四方之會通 周密者能成 格戾者不入 懦夫之心常忿懣也
百工之和利 有恥者能任 偷惰者不行 鄙夫之心常好樂也
- 15) 不可不反誠然後 與衆同濟而不憂患也
不可不克勤然後 與物復俱立而不恐懼也
不可不煥慧然後 有學有教而不忿懣也
不可不遍能然後 有爲有守而不好樂也
- 16) 無目則無視 無耳則無聽 耳目廢而驪瞽則豈美形人乎哉
不智則無助而憂患 不仁則不立而恐懼
無禮則格戾而忿懣 無義則偷惰而好樂
是可堪乎可哀也已 孟子曰 人之有四端猶其有

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也
不其丁寧之乎

- 17) 民有私己之得也 所以畜也
民有欲人之有也 所以詐也
民有放縱之好也 所以侈也
民有安逸之願也 所有懶也
- 18) 不獨畜之不善出於私也 雖誠之善亦出於私也
不獨詐之不善出於欲也 雖勤之善亦出於欲也
不獨侈之不善出於放也 雖能之善亦出於放也
不獨懶之不善出於逸也 雖慧之善亦出於逸也
- 19) 是知物私非不善也 事私斯不善也
事欲非不善也 物欲斯不善也
身放非不善也 心放斯不善也
心逸非不善也 身逸斯不善也
- 20) 抑有 不敬私之道乎 其學乎
抑有 不礙慾之道乎 其辨乎
抑有 不陷放之道乎 其問乎
抑有 不迷逸之道乎 其思乎
- 21) 以其治國平天下之誠爲學所得之也
故其私已得之畜莫之蔽也
以其修身齊家之勤爲辨所得之也
故其欲人有之詐莫之礙也
以其格物致知之慧爲問所得之也
故其放縱好之侈莫之陷也
以其誠意正心之能爲思所得之也
故其安逸願之懶莫之迷也
- 22) 斥畜而反誠則 智無偏矣
却詐而趨勤則 仁無倚矣
戒侈而治慧則 禮無過矣
警懶而習能則 義無不及矣
- 23) 是故私最是善作孽也
· 博學治平則莫之孽也
· 欲最是善作孽也
· 明辨修齊則莫之孽也
· 放最是善作孽也

審問格致則莫之孽也

- 逸最是善作孽也
- 慎思誠正則莫之孽也

○ 事物篇에 연 關된 大學章句

1) 「經一章」

- 大學之道 左明明德 在親氏 在止於至善
- 知止而後 有定 定而後 能靜 靜而後 能安 安而後能慮 慮而後 能得
-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 在格物
- 格物而後 知至 知至而後 意誠 意誠而後 心正 心正而後 身修 身修而後 家齊 家齊 而後 國治 國治而後 天下平
- 自天子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 其本 亂而未治者 否矣 其所厚者 溥 而其所溥者 厚 未之有也

2) 傳七章(釋正心修身) ^{14,15,16)}

- 所謂修身 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懣則 不得其正 有所恐懼則 不得其正 有所好樂則 不得其正 有所憂患則 不得其正
-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 此謂 修身 在正其心

3) 傳八章(釋修身齊家)

- 所謂齊其家 在修其身者 人之其所親愛而辟焉 之其所賤惡而辟焉 之其所畏敬而辟焉 之其所哀矜而辟焉 之其所敖惰而辟焉 故好而 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

2. 格致藥 儒略 天勢

- 1) 智在存心是謂意誠 意若得誠其意無意 禮在存心是謂心正 心若得正其心無必

義在存心是謂身修 身若得修其身無固
仁在存心是謂家齊 家若得齊其家無我

- 2) 仁義禮智 聖之性也
英雄豪傑 天之民也
黠巧潔便 世之人也
意心身形 衆之秉也
 - 3) 仁義禮智之心 成天樂天也
英雄豪傑之心 格物治平也
滔滔一世之願 富貴顯達也
億兆公同之戒 貧賤困窮也
 - 4) 周公孔子 仁義禮智之上聖也
伊尹太公 英雄豪傑之次聖也
龍逢 比干 黠巧潔便之魁傑也
鐵中 錚錚 億兆愚民之魁傑也
3. 格致彙 儒略「天時」
- 1) 究之以言 以實其意
探之以蘊 以實其慮
闕之以容 以實其膽
揣之以勞 以實其志
 - 2) 雖則以意 其意莫測
雖則以慮 其慮莫測
雖則以志 其志莫測
 - 3) 從容舒活聞搏或觀 - 雖則從容 從容未必
進退密勿廉慤或觀 - 雖則密勿 密勿未必
安徐忠介憤悱或觀 - 雖則忠介 忠介未必
親近貞良技藝或觀 - 雖則貞良 貞良未必
 - 4) 不成其意, 莫盡人意 - 莫誠人意 - 實難接友
不正其心 莫盡人慮 - 莫誠人心 - 實難迎客
不修其身 莫盡人膽 - 莫誠人身 - 實難應儕
不一其力 莫盡人志 - 莫誠人力 - 實難用曹
 - 5) 意安性中 知性安意
心安物中 知物安心
身安天下 知天下安身
力安國中 知國安力
 - 6) 不致知性 難爲誠意 - 雖未意誠 養性漸誠

不明萬物 難爲正心 - 雖未心正 格物漸正
不立天下 難爲修身 - 雖未身修 任重漸修
不通經國 難爲一力 - 雖未一力 敬國漸一

- 7) 不反妄私 何以養性
不精切磋 何以格物
不高志節 何以任重
不恥陋慾 何以敬國
- 8) 致知誠意, 意誠能性 - 何謂能性 - 知天事天
格物正心, 心正能物 - 何謂能物 - 知人治人
信天下修身, 身修能天下 - 何謂能天下 - 知立能立
忠國齊家, 家齊能國 - 何謂能國 - 知欲安欲
- 9) 致知誠意 意誠實難
格物正心 心正實難
信天下修身 身修實難
忠國齊家 家齊實難
- 10) 衍義曰 佛氏之性 絕知寂意
告子之心 拒物堅心
淺士之身 苟妄尊身
愚民之家 忘國利家
此四者敗亡之陷穽也
孟子曰 苟不充之不足以事父母此之謂也
- 11) 意性之主宰也 性意之宅宰也
意日有所得也 性日有所積也
意往而求知得之而反之性也
故得之者意也 實求則養性也
藏知者性也 廢積則邪意也
- 12) 學問之道無他求之吾意而已
思辨之道無他藏之吾性而已
是故 誠意則 擇乎中庸而 能率性也
盡性則 左右逢原而 自誠意也
盡其心者 知其性 盡其心者 無窮用意也
知其性者 盡得性理也
性理者 文王易象 渾然全備於吾之知覺中
曰盡性

○ 天勢 天時에 연관된 學·庸·章句

1) 大學 經 1章

2) 中庸

• 「第一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 「第二十章」

·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不思而得 從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 固執之者也

·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 「第二十一章」

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 「第二十二章」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 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 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 贊天地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 「第一章」

· 致中和 天地位焉萬物育焉

• 「第三十二章」

唯天下至誠。爲能經綸天下之大經。立天下之大本。知天地之化育 夫焉有所倚

• 「第二十三章」

其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天下至誠能化

• 「第二十五章」

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 誠之爲貴

• 「第二十章」

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一也

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強而行之 及其成功一也

4. 「天下索我」

1) 我意反側 無非憂患

我心 惻惻 無非忿懣

我身 偷惰 無非好樂

我力 拙劣 無非恐懼

2) 何謂意誠 意不誑人 何謂好友 友不以誑

何謂心正 心不詭人 何謂好客 客不以詭

何謂身修 身不譎人 何謂好走 徒不我譎

何謂一力 力不佯人 何謂好服 徒不我佯

3) 莫見乎隱 莫顯乎微

我實行之 人實知之

可以爲善 不可爲惡

4) 偏慎其獨 難爲守獨

偏察物情 難爲接物

格物慎獨 庶幾不罔

慎獨格物 庶幾不殆

5) 獨非徒獨 獨則思也

接非徒接 接則問也

辨非別辨 思則辨也

學非別學 問則學也

若能實思 自然實辨

若能實問 自然實學

6) 何謂慎獨 獨思無邪也

何謂格物 物問有正也

爲人也惡惡 慎獨者多

爲人也好善 格物者多

果能惡惡 自然善思

果能好善 自然善問

7) 伯夷之所惡者僞也 僞者天下之至煩也

不可以惡而必克

抑下專之所好者誠也 誠者天下之至精也

不可以好而必得

8) 好誠圖誠 泊沒接物

惡僞避僞 狹窄守獨

接物自反 守獨得誠

守獨勇往 接物克僞

5. 反誠箴

- 1) 此箴名武 依倣易象
而乾兌箴 尊道中庸
坤良箴欽德大學
離震箴 取則柳下惠
坎巽箴 取則伯夷
- 2) 詐心而行詐則詐也
詐心便發 米及行詐而反誠則 學問也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凡人心中 或酒或色 或貨或權
必有膠着之欲故 行詐也
就其中膠着之甚者 克之則 其他泛泛之欲
不克而 自克也
此之謂 克己復禮也 其法莫如此等
非禮之事 勿視勿聽 勿言勿動 最為上策
「乾箴」
- 3) 戴天料往 - 戴天悠遠 - 悠遠安思
履地擇來 - 履地博厚 - 博厚安欲
出門觀物 - 出門宏壯 - 宏壯安包
遊燕守己 - 遊燕實廣 - 實廣安趣
「乾箴下載」
- 4) 道也者 天命之道也 天命之道 孰可須臾離
於斯乎
德也者 人性之德也 人性之德 何不顯沛必
於是乎
是故 君子必戒慎乎其所不覩而慎獨致知 恐
懼乎其所不聞而慎獨致知
- 5)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
之和
慎獨而致知者 天下之大本也 修身而行世者
天下之達道也
- 6) 往必有哀 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 人性也 往來立臨 天命也
以天命而授人性者 天命之性也
以人性而順天命者 率性之道也

喜怒哀樂之未發 即致知慎獨也

致知慎獨 即戒慎恐懼也 致知慎獨 不息而
久則 修道之教也

- 7) 自己獨得之性 盡於內則 與人相接之性 盡
於外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時措之宜也

知天然後 喜怒哀樂 已發而節也 知人然後
喜怒哀樂 未發而中也

知天知人 聖之所能也 抑其次者 雖賢也
能之乎

是故君子 必恒常戒慎恐懼於閉居獨處之時
則 往來立臨之間

自然穿過 而閉居獨處之所得 亦終至於悠
遠博厚高明也

- 8) 高明則知天知人矣 其次致曲 曲能有誠
擇善而固執 誠之者人之道也 皆謂此也

- 9) 洞知天下人心之善性然後 喜怒哀樂 已樂
而節也

洞知天下人心之惡慾然後 喜怒哀樂 未發
而中也

〈坤箴〉

〈巽箴〉

- 10) 乾坤離坎箴之情僞

我必行詐於人之機勢也 存心之戒也

良兌震巽箴之情僞

人必行欺詐於我之機勢也 守身之戒也

- 11) 一身立誠於昊天之下而中庸之道 行於昊天
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而大學之德行於大地之
上 坤良部位 所以形於下也

- 12)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坎巽部位 所以形於右也

- 13) 身有兩容 誠身 敬身也

心有兩用 理心 利心也

誠身 敬身者 身之前後也

誠於乾而 敬於坤也

14) 理心·利心者 心之左右也

理於離而 利於坎也

擇理未精則 理亦利也

擇利·得正則 利亦理也

15)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 心之 緩急 身有 身之 先後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物之本也 艮=物之末也

離=心之急圖也 震=心之緩圖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

16)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 物 心身之心 四象之心也

17) 易繫辭之乾坤 以兩儀之 乾坤言之也

八卦之乾坤 以八卦之 乾坤言之也

六十四卦之乾坤 以六十四卦之乾坤言之也

中央之心 兩儀之心

四象之心 亦類此也

18) 曰然則 身之上下 為乾坤

心之左右 為離坎者何耶

曰身之實理 直行故 有前後而無左右

心之實理 廣濶故 有左右而無前後

19) 若夫身之 左右 橫放

心之上下 出沒

即私放逸慾之所致也

非擇乎中庸 允執厥中之上下左右也

6. 「獨行編」

曰中庸曰君子之所不可及者 其惟人之所不

見乎

人之所不見者 何耶

曰有皇上帝 降衷于下民若有恒性 性者 理也

有藐下民聽命于上帝箇有真情 情者 欲也

理之未盡於性者 才 才之分 有千萬等而下

愚以上 皆有才也

欲之不合於情者 謂之慾 慾之分 有千萬等而

中知以下 皆有慾也

是故 天下之人 猝然相惡 莫不相愛者

雖跖之徒 亦能之也 無他才也

• 天下索我 反誠箴에 관련된 學 庸 章句 「大學」

「傳 六章」(釋誠意)

• 所謂誠其意者 無自欺也 如惡惡臭 如好
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

• 小人 閑居為不善無所不至 見君子而後 厭
然揜其不善 而著其善 人之視之 如見其肺
然則 何益矣 此謂 誠於中 形於外 故 君
子 必慎其獨也

• 曾子 曰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

•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月手 故 君子 必誠
其意

「中庸」

• 「一章」

• 天命之謂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
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 莫見乎隱 莫見乎微 故 君子 慎其獨也

•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
和中也者 天下之大本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 「二十章」

•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乎身矣

•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 博學之 審問之 明辨之 篤行之
- 有不學 學之 弗能 不措也 有不問 問之 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 弗得 弗措也 有弗辨 辨之 弗明
不措也 有弗行 行之 弗篤 弗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果能 此道矣 雖愚 必明 雖柔 必強
- 「二十二章」(言天道也)
-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 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 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 「二十三章」(言人道也)
- 其次 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 爲能化
- 「二十五章」(言人道也)
- 誠者 自成也 而道 自道也
- 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是故 君子 誠之爲黃
- 誠者 非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知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故 時措之宜也
- 「二十章」
子曰 好學 近平知 力行 近平仁 知耻 近乎勇
- 「二十六章」(言天道也)
- 故 至誠 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 博厚 所以載物 高明 所以覆物 悠久
- 博厚配地 高明 配天 悠久 無疆
- 如此者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
- 天地之道 可以一言而盡也 其爲物不貳 則其生物不測

- 天地之道 博也 厚也 高也 明也 悠也 久也
- 今夫天 斯昭昭之多 及其無窮也 明星辰 繫焉 萬物 覆焉
今夫 地 一撮土之多 及其廣厚 載華嶽而 不重
振河海而不洩 萬物載焉
今夫山卷石之多 及其廣大 草木生之 禽獸居之 寶藏 興焉
今夫永 一勺之多 及其不測 鼃黽蛟龍魚鼈 生焉貨財 殖焉

3. 考 察

「學庸」의 思想은 格致 夔 全般에 걸쳐 바탕이 되고 있으나, 本 考는 다만 주로 인용된 몇편(事物·天勢·天時·天下索我 反誠箴)을 통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儒略 「事物篇」에서는 大學 傳七章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私·欲·放·逸之心」에 가리어 「學·問·思·辨」에 힘쓰지 않음으로써 憂患, 恐懼, 忿懣·好樂之心이 생김을 밝히고 「學·問·思·辨」을 통한 格物致口·誠意正心·修齊治平의 구현으로 仁·義·禮·智之性에 偏·倚·過·不及을 극복한다고 말하여 正心修身(傳七章의 근본취지를 朱子는 正心 修身에 두었다)의 궁극을 仁·義·禮·智의 本性을 밝힘에 두었다.

「天勢篇」에서는 사람에 차등을 두어 聖之性, 天之民, 世之人, 衆之秉으로 나누고 구하는 바가 각기 다름을 말하였다.

聖人은 仁·義·禮·智之心을 보존(存心)하여 成天樂天하고(誠者 天之道也) 次聖은 格物致平하여 仁·義·禮·智之心을 보존코자 애쓰며(誠之者 人之道也), 世人은 오직 富貴達을 꾀하여 權變·器率·行檢·作處에 기량을 다투나 이러한 權變·器率·行檢·作處는 四端을

근본하여 쓰므로(衆人 日用而不知) 이를 擴而充之 仁·義·禮·智之心을 보존하는데 궁극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擴充의 方法은 「八條」에 두고 있다. 權變·器率·行檢·作處의 四端을 살펴보면 權變(是非之端), 器率(恭敬之端), 行檢(羞惡之端), 作處(惻隱之端)으로 存心치 못한 폐단으로 蕩·狂·絞·愚를 들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中庸 20章 「誠者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 固執之也」에 잘 드러나 있다.

「天時」篇은 非血緣集團에서의 사겁에 있어 志膽慮意의 眞假 誠僞를 판단, 知人하는 어려움을 말하였다. 이는 「知人難哲·達觀難鏡, 修身難誠, 濟衆難得」이라는 언급속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知人の 완성은 致知誠意를 통한 知天事天, 格物正心을 통한 知人 治人, 信天下修身을 통한 知立 能立, 忠國齊家를 통한 知欲安欲에 의해 구현되며, 도정으로서의 漸修養性, 擴而充之를 강조 誠意를 가장 기본 바탕으로 두었다.

「天下索我」篇에서는 格物·慎獨을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다.

「學·庸」 모두 誠을 말하는데 임으로 ‘慎獨’을 中心으로 하고 있으며 本篇은 格物(察外), 慎獨(察內) 그 어느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병행해야만 誠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는 好善·惡惡, 學問·思辨, 知行의 대비로 연결된다. 또 이제마는 好善에는 柳下惠를 惡惡에는 白倮를 대표적 인물로 들고 있다.

「反誠箴」中 「乾箴」은 中庸의 首章·二十章·二十二章·二十三章·二十五章을 인용, 中庸의 中心 思想을 요약하였다.

首章의 「喜怒哀樂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

之和 中也者 天下地大本 和也者 天下之 達道也」의 부분을 인용, 已發而節은 知天 洞知天下人心之善性 연후에 가능하고, 未發而中은 知人, 洞知 天下人心之惡慾 연후에 가능하되하여 天·人道를 밝혔다. 그러나 凡人도 戒慎恐懼하여 閑居獨處之所得則 亦終至於 悠遠博厚·高明이라하여 「漸修養性」을 밝혔고 이는 四端論의 「未發恒戒 漸近於中, 已發而自反 漸近於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中庸의 悠遠·博厚·高明은 成物·載物·覆物로 우주의 구성요소를 밝혔고 이는 이제마 철학의 四元構造 도출에도 영향을 바 있다.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대한 考察」(宋一炳著)에서는 成物, 載物, 覆物中 成物을 知·行으로 나누어 「天·地·知·行」을 도출, 「性命論」에서 「天機·有四, 一曰天時, 二曰世會, 三曰人倫 四曰地方」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反誠箴」中 「巽箴」에서는 太極의 心과 兩儀인 心身의 內面的 發展過程을 거쳐 事·物·心·身의 四象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前後’로 나누어 八卦로의 分化를 설명, 周易의 分化過程을 다른측면에서 모색하고 있다. 또 이는 大學의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에서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이제마는 中庸의 道를 乾道로 形以上에, 大學의 德을 坤道로 形以下에, 身을 敬身·誠身으로 나누어 前後에, 心을 利心·理心으로 나누어 左右에 배치, 心身事物에 공간적 概念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巽箴」은 格致 藁 및 이제마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나 실력이 짧아 다 이해할 수 없다.

Ⅲ. 結 論

1. 格致藁全般에 걸쳐 知人 正己는 중요한 테마로 「正己」는 「我必行詐於人之機勢也 存心之戒」로 「知人」은 「人必行詐於我之機勢也 守身之戒」로 요약될 수 있다. 「知人」의 목적은 守身에 그치지 않고 「穩惡而揚善」하는 데 있으며 이는 大學의 「明明德新民」의 취지에 부합한다.

2. 「格致·意誠·心正·身修·家濟·治平」의 大學 八條를 誠에 이르는 方法論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은 知天知人하는 中庸의 道에 두었다.

3. 大學을 人道에 中庸을 天道에 두어 大學 八條를 통한 誠意正心으로 궁극에 中庸의 成天樂天에 이를 수 있다하여 大學을 形以下에 中庸을 形以上에 두고 있다.

4. 中庸之道 - 乾兌 形以上, 大學之德 坤艮 形以下. 知行之術 - 離震, 形於左, 財祿之權 坎巽 形於右하여 四元構造의 도출에 學·庸의 中心思想이 근간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5.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 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에서는 大學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에서 知를 心·身으로 확대 해석 「事·物·心·身」의 기본구조를 도출했다고 보며 中庸의 覆物, 載物, 成物 中 成物을 知物과 行物로 해석, 「天·地·知·行」을 도출했다고 보아 學·庸이 이제 마 철학의 중요한 근간이 됨을 시사했다.

Ⅳ. 參 考 文 獻

1. 金達來 「李濟馬의 學問的 淵源과 四象 醫學의 形成時期에 對한 研究 대한사상의학 학회지 Vol.2, No.1, 1990.
2. 朴爽彥譯 格致藁 太陽社 1985.
3. 李家源 新譯 大學·中庸 弘新文化社 1981.4.
4.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78.
5. 大學 서울 明文堂 1980.
6. 孟子集註 서울 明文堂 1979.
7. 中庸 서울 明文堂 1978.